

제 18 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장에 이승민 현 부회장

(서울=연합뉴스) 왕길환 기자 = 재미동포 1.5~2 세의 정체성 교육을 책임지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)의 18 대 회장에 이승민(41) 현 부회장이 뽑혔다.

NAKS 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 일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열린 제 34 회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19 일 연합뉴스에 알려졌다.

이 신임 회장은 "뿌리교육을 위해 힘쓰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학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다"며 "2 년 임기 동안 모두에게 인정받는 한국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"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.

중학교에 다니던 15 살 때 미국에 이민한 이 신임 회장은 버지니아의 애난데일고교와 조지메이슨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, 현재 투자 컨설팅업을 하고 있다.

1993 년 애틀랜타에 있는 새한한국학교 교사로 뿌리 교육에 나선 이 회장은 새언약한국학교 교장, NAKS 워싱턴지역협의회 총무, 회장 등을 지냈으며, 제 17 대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다.

미국내 외국어교사협회와 교류를 비롯해 한국어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, 조지메이슨대 교원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는데 도움을 주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공로로 2014 년 대한민국 국무총리상을 받았다.

총회에서는 고은자 동북부지역 선출이사가 이사장에, 오정선미 현 사무총장과 장은영 북가주협의회장이 부회장에 각각 선출됐다.

미국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NAKS 는 미 전역 14 개 지역협의회 산하에 1 천 200 여 개 한국학교를 둔 단체로, 소속 학교에서 3 만여 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. 이 단체는 내년 8 월 애틀랜타에서 제 35 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열기로 했다.



이승민 회장(왼쪽)이 단체 깃발을 인계받고 있다.



제 18 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승민 회장.

ghwang@yna.co.kr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2016/07/19 15:07 송고